

| 발간사 |

산업간호사 선생님들께...



김 효 경

광주전남북제주지부장 / (주)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아름다운 단풍과 풍요로운 가을들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만, 한편 일조량의 부족으로 우울감 및 집중력 저하로 피로감을 쉽게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전국에 계신 산업간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2005년 경기지역에서 노말핵산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사건 등이 산업보건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비정규직 문제로 노총 및 보건관리자 여러분들도 어수선한 한해였습니다.

산업간호사, 보건관리자인 우리들의 업무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 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보건관리자가 되어 우리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96년에는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이 직업병의 주류였으나, 1999년부터는 뇌심혈관계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진폐증이나 소음성난청은 줄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근골격계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직무스트레스 관련 질환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건 대상사업장도 제조업에서 이제는 서비스업, 유통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상근로자도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로 확산되어 빠른 속도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근골격계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즉 대사성 질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의 생활습관과 관련이 많은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인식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생활 자세를 갖도록 전문가적인 조언 및 생활태도 변화를 주도해주는 보건관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식이요법 및 체중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업적 과로 및 스트레스성 질환은 상담 및 일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근로자와의 라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나아가간다면 직장분위기도 한층 밝아져 작업능률도 올라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과 달리 보건분야는 눈으로 일의 효과를 증명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의지 없이는 나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건교육 및 상담, 관심을 통해 예방 및 치료, 재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직장 내 틈새 건강관리 부분을 모색해 사업장의 1차적 예방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산업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2005년 6월에는 아동, 종양, 임상의 전문 간호사 분야가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났으며 8월에는 전문간호사 시험이 가정, 마취 분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2006년에는 모든 분야의 전문 간호사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지방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교육을 쉽게 접하기가 힘들지만,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 자격에 맞게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는 제도가 빨리 정착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협회에서 수고하시는 임원진들과 여러 사업장에 계신 산업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귀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